

2022 현충원 마을탐방 자료집

— 국립서울현충원을 걷다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만남 길 탐방

■ 〈독립유공자 만남 길〉

- 탐방 의도 : 독립유공자길 탐방을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고 동작 지역과 관련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함.

■ 〈독립유공자 만남 길〉

- 탐방 코스 : 독립유공자묘역 - 무후선열제단 - 임시정부요인묘역 순으로 탐방



■ 이번 현충원 마을탐방에서는

※ 영화 <암살>, <밀정> 등에 등장했던 독립운동가 김상옥, 권기옥, 남자현, 신순호-박영준 부부, 의열단 김익상, 박재혁 의사, 김일성 집안과 깊은 인연을 맺은 손정도 목사, 아직도 진행형인 가짜 독립운동가 묘비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가는 형태로 문화기행을 준비함.

탐방길 (2시간 소요)	① 독립유공자 묘역(김상옥, 신순호-박영준, 권기옥, 남자현 지사 등) - ② 무후선열제단(박열, 김마리아, 유관순 열사 위패) - ③ 임정요인묘역(양기탁, 이상룡-김우락, 박은식, 손정도) - ④ 장군 2묘역(손원일, 신태영.) - 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	--

국립서울현충원 소개

-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그 나라의 국립묘지에 가 보라
-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응축되어 있는 곳,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외국의 국가원수나 주요 인사가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가는 코스 중의 하나가 국립서울현충원이다. 이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립서울현충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들을 모신 독립유공자묘역,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아픈 현대사 속에서 돌아가신 군인과 군무원을 모신 군인·군무원묘역¹⁾,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안장된 국가원수묘역, 정치·경제·사회·문화

1) 국립현충원의 군인·군무원묘역은 장군묘역과 장교묘역, 사병묘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여 장군묘역과 장병묘역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등 다방면에서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모시는 국가유공자묘역,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 하던 이들이 안장된 경찰묘역 등이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한국근현대사를 응축해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국군묘지로 시작한 국립서울현충원

1) 국립서울현충원은 왜 국군묘지로 출발했을까?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군묘지로 출발하였다. 이는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의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닥쳐온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현대사와 관련이 있다. 특히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으로 14만 명 이상의 한국군이 전사하여 이들을 안장할 묘역 조성은 시급했다. 국군묘지의 물색은 1952년부터 본격화되어,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9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현재의 자리를 국군묘지 부지로 재가받으면서 195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 4월 22일에는 ‘제4회 3군 전몰장병 합동추도식’을 거행하였고, 1955년 7월 15일에는 국군묘지관리소가 창설되었다. 1956년 1월 16일에는 최초로 무명용사를 안장하면서 마침내 묘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²⁾

2)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된 것은 1965년부터이다. 군인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경찰관, 전직 대통령, 향토예비군도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지 17년 만의 일이었다.³⁾

■ 독립운동가를 모시는 국립묘지는 왜 해방 이후 바로 조성되지 않았을까?

1)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 대한민국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묘역(구 애국지사묘역)과 무후선열제단, 임시정부 요인묘역,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으로 이어지는 독립유공자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2)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현충원의 역사·연혁’

(https://www.snmb.mil.kr/mbshome/mbs/snmb/subview.jsp?id=snmb_010200000000) 참조

3) 동작동 국군묘지의 운영 근거는 법률적 근거 없이 1956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군묘지령」이었는데, 안장자 자격을 다룬 제2조 “전조의 묘지에는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으로서 사망한 자 중 그 유가족이 원하거나 유가족에게 봉송할 수 없는 유골, 시체를 안장한다.”는 내용에 1957년 1월 “전향의 규정에 불구하고 묘지에는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순국열사 또는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자의 유골, 시체를 안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때 이미 독립유공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순국열사’도 국군 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1964년에 가서야 현실화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독립유공자묘역 참조)

1965년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조성된 애국지사묘역을 시작으로 무후선열 제단(1975), 임시정부요인묘역(1993),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2002)이 차례로 조성되거나 건립되었는데, 이를 아울러 독립유공자묘역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헌법 전문의 위 문구는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와 이를 계승한 전두환 정부 시기 일시 사라졌던 제헌헌법의 정신을 부활시켰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⁵⁾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정식 출범을 알리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자신을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로 천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국립묘지를 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조성하지 않았던 것일까?

2) 헌법 정신과 현충 시설 조성의 불일치

대한민국 현충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헌법 정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현충 시설인 장충사를 재건하여 38선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남과 북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돌아가신 군인⁶⁾을 모시는 일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했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모시는 현충 시설을 조성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소홀했다.

4) 2019년 1월 15일 국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13조(묘역의 구분) 1항의 2 ‘애국지사묘역’을 ‘독립유공자묘역’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묘역이 기존의 ‘애국지사묘역’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와 기존의 애국지사묘역과 무후선열제단, 임시정부요인묘역과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독립유공자묘역으로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5) 5·16 군사 정변 이후 개정된 6호헌법(1962. 12. 26, 전부개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시작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1919년의 3·1운동으로 “건립”하였고 1948년에 “재건”하였다는 구체적인 인식은 헌법 전문에서 제거되었다.

6) 한홍구(『한홍구와 함께 걷다』 60쪽)는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희생된 대한민국 군인의 숫자는 약 8천 명”이었다고 했고, 강인철(『전쟁과 희생』 353쪽)은 2,111명이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모시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시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을 이끈 백범 김구는 일본으로부터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효창공원에 3의사 묘를 조성하였다. 중국에서 사망한 임시정부요인 이동녕 선생과 차리석 선생의 유해를 봉안하여 1948년에 효창공원에 모시고, 1948년에 돌아가신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을 안장한 이도 백범 김구⁷⁾였다.

비슷한 시기에 김구는 1948년 3월 유엔 소총회가 ‘가능한 지역에 국한한 선거 실시’를 결정하자, 단독정부 수립은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며, 남과 북에 단독정부 수립은 동족상잔의 내전(內戰)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남북협상으로 북쪽을 설득하여, 처음부터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남북 분단과 내전을 막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1948년 4월 19일 김규식 · 조소앙과 함께 평양에서 남북협상을 마친 뒤, 서울로 돌아왔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정계를 은퇴하였다.



효창공원에서 순국열사를 모시고자 노력했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사진 출처: 독립기념관(1944년 9월 6일,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시절 모습)

7)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 구한말 국내에서 동학농민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다가 1919년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가 되었다. 해방 후에는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며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했으며, 완전자주독립을 주장하면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1949년 6월 경교장 서재에서 육군 현역 장교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3) 독립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해방 직후의 노력

백범 김구 선생 이전에도 장충단공원에서 독립운동 중에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기리려는 노력은 있었다. 해방 직후(1945. 10. 9) <신조선보>에서는 독립운동가 연병호(1894-1963)⁸⁾를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나라를 다시 찾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국내 국외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어가며 투쟁을 하다가 아깝게 희생이 된 애국적 지도자 선배 여러분을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 영원히 봉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멀리 상해로부터 최근 귀국한 연병호 씨를 중심으로 유서 깊은 장충단의 자리에 순국의열사 봉건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일 중 각 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준비회를 열리라 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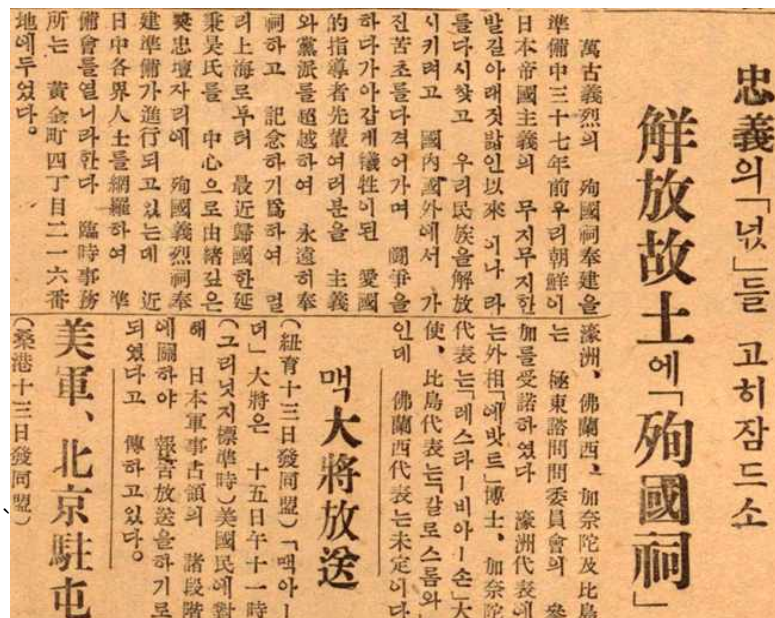


장충단 공원에서 순국열사를 모시고자 노력했던 독립운동가 연병호 선생
사진 출처: 충북일보(2019.3.24)

8) 충청북도 괴산(현 증평) 사람이다. 1919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을 거쳐 1934년에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뽑혀 1935년 10월까지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일제 앞잡이인 상해거류조선인 회장 이갑녕(李甲寧)의 저격사건이 일어나자 일제의 추적을 받아 1937년 1월 7일 체포되었다. 국내로 압송된 그는 징역 8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10월에 출옥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독립유공자 묘역-167에 안장되어 있다.

9) <신조선보>, 「충의의 ‘넋’들 고이 잠드소 - 해방고토에 ‘순국사’」 (1945. 10. 9)

해방 직후 독립운동가들이 장충단공원에 순국선열을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장충단공원은 대한제국기인 1900년부터 대한제국의 순국선열을 모시는 제단을 쌓았던 상징적인 장소였다.¹⁰⁾ 더군다나 일제는 장충단을 허물고 이곳에 박문사를 세워 일제 침략의 상징적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공간으로 이용했다. 해방과 함께 박문사와 일본군의 동상(육탄3용사) 등을 철거한 사람들은 3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유서 깊은 장충단공원에 모시고자 했다. 하지만 미군정당국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효창공원이 차선으로 선택되었다.¹¹⁾



<신조선보>의 기사(1945. 10. 9)

장충단공원에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38선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나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에서 숨진 국군의 유해가 봉안된 장충사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¹²⁾

이로 인해 독립운동에 기반하여 탄생한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시작의 역사가 독립유공자묘지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남북 대결구도의 흐름속에서 반공 군사주의의 상징적 공간을 의미하는 국군묘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시작은 결국 프랑스형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고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북군을 안장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조성한 미국형과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 <황성신문>, 「장충제단」 (1900. 11. 12)

11) <동아일보>의 기사 「사후설치, 안중근 선생 추모 이등의 동상분쇄」 (1945. 12. 12)와 <대구시보>의 기사 「3의사 유골 서울에 봉장」 (1946. 6. 14) 참조

12) <한성일보>는 「진충영령의 제단 장충단공원에 설축」 (1949. 9. 23)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방된 오늘 뜻 깊은 고적에 또 다시 장충사를 건립하여 순국장병의 영령을 봉안케 되었음은 실로 의의 깊은 일이라 할 것”이라며 장충사의 건립 소식을 전하고 있다.

4) 이승만 정부가 독립유공자 묘역 조성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이승만 정부는 1949년 8월 15일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표창을 추진한다. 그런데 표창식에서는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 단 2명만이 건국공로훈장을 받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¹³⁾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승만 대통령(1948.8.15.)

사진 출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며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8월 15일에 수여하려던 건국공로 훈장수여가 심사문제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답변이다.

건국공로표창에 있어 우리는 외국 친구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들만은 아니나 해방시키기 위하여 왜군과 싸워 희생된 사람들도 많고 기타 과거 수십 년 우리 독립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 표시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특히 현재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 군경을 먼저 표창해야 할 것이다. 미국법에는 국회의 승인 없이 군인이나 관공리가 외국의 훈장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 미국회와 연락해야 하겠다. 이번 추천된 표창을 받을 사람 중에는 대통령과 각료도 끼어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나보다도 심용사를 먼저 표창해야 할 것이다.¹⁴⁾

대대적인 독립유공자 표창이 중단된 이유가 마치 38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크고 작은 충돌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답변의 핵심은 인용자가 강조한 부분에 있다.

13) <동아일보>, 「삼천만 겨레의 훈장 정부통령에 봉정」 (1949. 8. 16)

14) <경향신문>, 「이대통령 기자회견담 - 먼저 심용사를 표창」 (1945. 9. 3)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수립 1주년을 앞두고 추진한 독립유공자 표창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광복에 기여한 미군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준 외국인을 표창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이승만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정 작업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도 확인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군인과 관공리가 외국의 훈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을 불과 2-3일 남겨둔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작업 자체를 전격 중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한 인식의 아쉬움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의 대상이 14명의 외국인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¹⁶⁾ 대한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독립운동에 기반하여 탄생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는 인식이 따르지 못하여 생겨난 아쉬운 결정이었다.

5) 4·19 혁명 이후에도 독립유공자묘역 조성이나 독립유공자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은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당의 장면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장면 정권은 독립유공자 11명을 선정해 10월 1일 '신정부수립 경축식'에서 기념품을 증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전인 9월 29일 장면 정권의 내각 회의에서 결의한 1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15) 건국공로훈장은 원래부터 “대한민국 원훈 및 한국자주독립에 훈적이 탁월한 외국인사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도 수여 대상이 될 수 있었다.(<동아일보>, 「건국공로장령 제정」 (1948. 12. 24) 기사 참조)

16) 이들 외국인 독립유공자 14명을 국적별로 정리하면 미국인이 총 11명(모리스 윌리엄, 일라이 밀러 모우리, 제이 제롬 윌리엄스, 존 더블유 스태거즈, 찰스 에드워드 러셀, 폴 프레드릭 더글라스,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프레드 에이 돌프, 허버드 아돌프스 밀러, 호레이스 뉴튼 알렌, 호머 베장렐 헬버트)이고, 이어 영국인이 1명(어네스트 토마스 베텔), 캐나다인이 1명(올리버 알 에비슨), 대만인이 1명(장제스)이다.(국가보훈처 공훈록<<http://e-gonghun.mpva.go.kr>> 참조)



1949년 8·15 정부수립 1주년기념식을 앞두고 추진하던 건국공로훈장 심사가 갑자기 중단된 사연을 보도한 <동아일보>(1949. 9. 3)

김창숙(유도회 회장), 이강·신숙·김중화(이상 광복동지회), 유림·김성숙·장건상·조경한(이상 임정국무위원), 김학규·오광선(이상 광복군), 유석현(항일 의거자)¹⁷⁾

하지만 곧바로 반발에 부딪힌다. 유림을 대표하는 심산 김창숙과 의열단 출신 유석현이 신정부수립 경축식에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창숙은 "표창 수상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¹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숙이 4.19 혁명 이후에 들어선 장면 내각의 신정부 수립 경축식에 참석 거부를 밝힐 정도로 독립 유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 모호함과 불투명함은 헌법 정신과 현충 시설 조성의 여전한 불일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장면내각의 국가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함에 불만을 선언한 독립운동가 김창숙 선생, 자료사진은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앓은뱅이가 되어 (麗翁)이란 별호를 사용하던 시기의 모습으로 생명이 위독하여 형집행정지로 출옥하게 되었다는 『동아일보』 관련 기사(1929년 5월 24일)

출처: 독립기념관

의열단 출신 유석현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갈 생각이 없었죠, 저 같은 게 뭐 애국자 축에 드나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도대체 독립유공자 선정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는 모르나 진짜 애국자와 진

17) <동아일보>, 「독립운동 유공자 11명에 기념품」 (1960. 9. 30)

18) <동아일보>, 「김창숙 씨 참석 거부」 (1960. 10. 1)

짜 투쟁경력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빠졌더군요, 그렇잖아요?"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유석현은 "한민당 시절에 이 박사를 도운다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그네들인데 무슨 큰 기대를 걸겠소?"라는 말로 '결정타'를 날린다.¹⁹⁾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이듬해 3·1절을 앞두고 이전과 달리 비교적 대규모인 205명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훈장을 수여한다.²⁰⁾ 4·19 혁명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현실과 군사 정변 세력이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이때도 논란은 계속 이어진다. 원래 대상으로 발표된 208명 중 3명이 3·1절 기념식 직전 명단에서 빠지는가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총리를 지낸 신규식의 유일한 혈육인 딸 신명호가 "고인의 생전 신조가 '허영과 공명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상을 받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수상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신명호의 남편이자 임정요인이던 민필호는 "(이번 포상은) 아량이 적은 웅졸한 일이었으며, 특히 수상자에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²¹⁾

여러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1965년에 이르러서야 현 국립서울현충원에 마침내 애국지사묘역이 들어서게 되었다.²²⁾



박정희 정권의 국가유공자 수상자 등급 선정에 부당함을 제기한 임시정부요인 신규식 가족.
1923년 중국 상하이 만국 공동묘지 신규식 선생 묘비에서 찍은 가족사진. 뒷줄 왼쪽부터
신규식 선생의 딸인 신명호씨, 오른쪽이 신규식 선생의 아내 조정완씨와 손녀 민영주씨,
사위 민필호(앞줄 가운데) 선생과 아들 민영수
출처: 중국 목단강지역 항일독립운동사적 보존회

19) <경향신문>, 「허식 없는 애국자(5)- 유석현 옹」 (1960. 10. 7)

20) 다만, 명목상의 서훈 주체는 당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윤보선 대통령이였다.

21) <동아일보>, 「신규식 선생 유족 '복장' 수상을 거부」 (1962. 3. 1)

22) 박정희 정부의 애국지사묘역 조성 역시 4·19혁명과 굴욕적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성과물이자 한일 기본조약을 추진하던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산물이라는 2중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 마침내 헌법정신과 현충시설의 불일치를 극복하다!

그러나여전한 아쉬움

1)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바뀌고, 애국지사묘역을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애국지사묘역은 군인묘역을 중심으로 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 게다가 독립유공자 심사과정에서 다수의 친일 인사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 중에서 1993년 임시정부요인묘역이 국립묘지에 들어선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기도 한 현행 10호 헌법의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을 계승”한 나라임을 다시 선언한 이래 마침내 국립묘지에 임시정부요인묘역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²³⁾ 제헌헌법이 공포된 지 45년 만의 일이었다.

2002년 5월 17일에 세워진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이 갖는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의 건립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절대 잊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해방된 지 57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지 54년 만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임을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현충원에서도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건립(2002.5.17.)

사진 출처: 서울국립현충원

23) 물론 이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백범 김구의 묘가 여전히 임시정부요인묘역이 아닌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정신과 현충시설의 불일치 극복은 현재진행형이다

-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국립현충원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현실은 불가피한가?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2명이 장군묘역과 국가유공자묘역 등에 안장되거나 안치되어 있다.²⁴⁾ 이러한 현실은 불가피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21대 국회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훈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이장할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 <상훈법>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란은 계속될 것인가?

사진 출처: 2020.6.13./뉴스1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김기태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613153309731>)

24) 『친일인명사전』 등재 기준으로는 그 숫자가 늘어나 총 74명에 이른다.

독립유공자묘역

■ 독립유공자 묘역 소개

국립서울현충원에 독립유공자묘역이 조성된 것은 1964년 동작구에 살던 독립운동가 김재근의 유해를 안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무후선열제단과 임시정부요인묘역을 조성하였으며 임정요인묘역 위로는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을 세웠다.

독립유공자묘역에는 구한말 의병장이었던 신돌석과 이인영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였던 독립유공자 214위가 안장되어 있다. 1975년에 조성된 무후선열제단은 독립유공자묘역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 홍범도 장군과 북한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조소앙, 김규식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분들 중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이 없는 130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임시정부요인묘지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중국 상하이만국공묘에 있는 임정요인 다섯 분²⁵⁾의 유해를 현충원으로 모셔오면서 조성되었고, 현재 20위가 모셔져 있다. 1945년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았으나 남과 북에 분단된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립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작업²⁶⁾은 하였으나 독립운동가를 모시는 노력은 부족했다.



사회주의 경력이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봐 숨어지내왔던 독립운동가
이병희. 국민일보 <3.1절
88주년—여성독립운동가 열전 반일
파업·의열단 활동 이병희 선생>,
사진 출처 : 국민일보 우성규 기자
(2007.2.28.)

<https://news.v.daum.net/v/2007022818184611001?f=o>

최고령 독립운동가 동덕여고 출신 이효정. 여성 독립운동가
이병희 선생의 조카이다. <최고령 여성 독립운동가 이효정옹,
건강 악화로 입원
노환으로 입원... '경성 트로이카' 활동으로 옥고 치르기도>,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박진 기자 (20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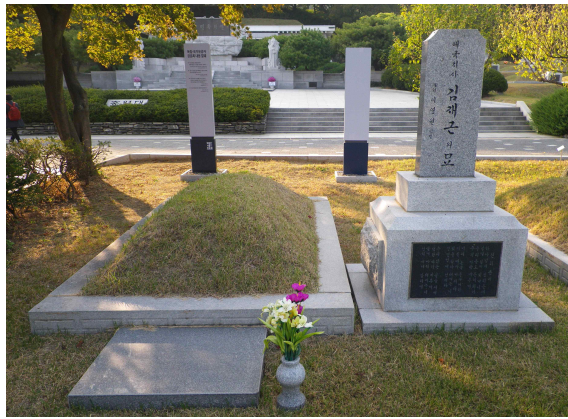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7232

25)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박은식,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 국무총리 노백린, 의정원의장 김인전, 안태국

26) 대한제국 때 설치된 장충단에 여순사건 전사자 안장을 시작하고 1950년 4월에 전사자를 위한 사당인 장충사를 개수 공사하여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 독립유공자묘역에는 어떤 인물들이 안장되었을까?

1) 1호 안장자, 교사 출신 김재근(1894~1964)



독립유공자묘역에 첫 번째로 안장된 김재근의 묘(독립유공자묘역-1)

1913년 4월 수원농림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 은밀히 동지를 규합하고 항일투쟁을 꾀하다가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1915년 강원도 홍천의 포인의숙(布仁義塾)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으며, 1918년 4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재학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김원벽, 강기덕, 한위건 등과 활약하였다. 3월 5일 서울시내에서 제2차 학생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감하였다.

출감 후 1919년 8월 7일 도산 안창호 선생과 연계되어 상해임시정부 특파원이 되었고, 상하이임시정부의 「대한독립애국단에 참여하고 강원도에 애국단을 조직하라」는 권유를 받고 1919년 8월 11일 고향인 철원으로 내려가서 대한독립애국단 철원군단을 조직·창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철원군단이 강원도단을 겸무하던 중 일경에게 발각되어 1920년 3월 9일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원산, 강릉 등 여러 감옥을 전전하며 옥고를 치렀다. 1964년 3월 7일 사망하자 고인을 애국지사묘역에 첫 번째로 안장하였다.

2) 3.1 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이었던 권기옥(1901~1988)



권기옥의 묘(독립유공자묘역-197)

권기옥은 1901년 1월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졸업 후 승의여학교²⁷⁾ 3학년에 편입하였는데 수학 교사 박현숙의 권고로 비밀결사조직인 송죽회²⁸⁾(松竹會)에 가입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신흥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박현숙의 지휘 아래 일본인 사감 호시코의 눈을 피해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애국가 가사도 등사하였다. 그리고 3월 4일 권기옥은 한선부, 김순복 등 20여 명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가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평양경찰서에서 3주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감금당하였다. 19세 고등학생 권기옥은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임시정부 공채를 대량으로 판매하여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권기옥은 승의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잘라 판 돈을 가져오거나 어머니의 패물을 판 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청년회 김재덕으로부터 권총을 찾아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재덕에게 전하였으나 김재덕이 오발하여 총소리를 내어 권기옥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검찰에서는 제령위반(制令違反)이란 죄목으로 6개월 실형을 받는다. 제령이란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조선 총독의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출옥한 권기옥은 1920년 8월 평안남도 도청을 폭파할 것이니 도와 달라는 전갈을 받고 송현소학교 지하실 창고에 숨어 폭탄을 제조하였다. 평남도청 경찰부 폭탄 투척 의거 후 결사대는 모두 만주로 빠져나갔지만, 임신 중에 거사에 참여했던 안경신이 피신처에서 잡히고 말았다. ‘평양청년회 여자전도대’를 조직하고 경찰 감시

27) 190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가 경영하는 형태로 평양에서 개교함.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다가 1953년 서울 중구 남산동의 송죽원을 임시 교사로 해서 승의여자고등학교로 재개교함. 2003년 동작구 대방동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함.

28) 1913년경 승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독립군의 자금 지원, 망명지사의 가족 돕기, 독립을 위한 회원들의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한 여성독립운동 단체

가 심해지자 1920년 9월에 상하이(上海)로 탈출하여 처음에는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손정도 집에 투숙하였다. 이후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에 운남육군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항공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비행기 타는 공부를 하여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리라”는 각오를 하였다고 한다. 입학 동기로는 이영무, 장지일, 이춘 등이 있었다.

1925년 3월 운남육군항공학교의 제1기 졸업생으로 학교를 마친 후에는 임시정부의 소개로 풍옥상 휘하 공군에서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로서 복무하였다.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신문기사²⁹⁾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1926년 이상정과 혼인하였다. 이상정은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시인 이상화의 형으로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한국독립당 최고위원, 중화민국 혁명군 중장으로 복무한 독립운동가이다. <중외일보>(1927.8.28)에 따르면, 권기옥은 다른 재중 조선인 비행가들과 함께 “중국혁명전선의 한국인 비행가”로 불렸다. 당시 한국인 최초의 여자비행사 권기옥의 비행시간은 총 7,000시간이었다.



1935년 중국 선전비행을 준비하던 시기의 권기옥(왼쪽에서 두 번째)



1937년 남경에서 이상화 시인(왼쪽)과 남편 이상정(오른쪽)과 함께 찍은 사진

난징(南京)에 머무르면서 권기옥과 이상정은 의열단과 관련을 맺었고,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교류하였다. 일제 첩보 자료³⁰⁾에 따르면 권기옥은 “난징 국민정부 항공서 비행사이자 의열단 여자부 연락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6년 하반기 권기옥과 이상정은 ‘일본 밀정’이라는 모함을 받아 8개월 간 옥고를 치른 뒤 출옥하였다. 1943년에는 김순애 등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를 재건하였고, 중국 공군의 한국인 비행사를 활용하여 광복군 비행대 편성 및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29) “중국창공(中國蒼空)에 조선(朝鮮)의 봉익(鵬翼), 중국하늘을 덩복하는 조선용사 그 중에서 꽃가튼 녀류용사도 잇서. 안창남(安昌男), 최용덕(崔用德), 여류비행사(女流飛行家) 권기옥(權基玉) 등 국민군(國民軍)에서 활약.” 1926년 5월 21일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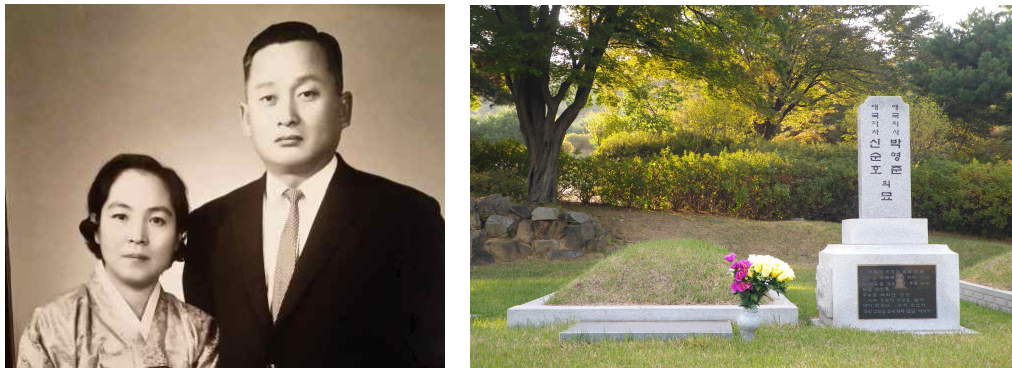
30) <사상회보> 4, 1935.9



대한애국부인회 시절의 권기옥(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울 장충동 2가 191의 4의 낡은 목조건물 2층 마루방에서 여생을 보내다 85세 되던 해에 이 집을 여성 운동가 이태영에게 팔았는데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던 이태영은 이곳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어 1988년 동성동본 결혼 금지조항을 폐지시켰고, 1989년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인정,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까지 인정등 일부 개정을 이루어 내는 등 우리나라 여성운동, 인권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1988년에 사망하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3) 광복군 커플 독립운동가 신순호-박영준



신순호 박영준 합장묘(독립유공자묘역-217,217-1)

박영준(1915-2000)과 신순호(1922-2009)는 한국광복군에서 함께 활동하던 중 결혼한 부부 독립운동가이다. 박영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부장을 역임한 박찬익의 아들이고, 신순호는 임시정부 재무부차장을 역임한 신건식의 딸이자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신규식의 조카이다. 박영준의 아버지 박찬익은 공업전습소 출신으로 최초의 공업기술자인 <공업계> 발간인이었고, 1910년 경술국치 후 망명하여 대종교에 기반하여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신순호의 아버지 신건식은 4형제 독립운동가(신연식, 신규식, 신건식, 신동식) 집안의 넷째였다. 신건식은 형 신규식과 함께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과 재무부차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922년생인 신순호는 백범 김구 선생이 1938년 남목청 사건³¹⁾으로 총격을 당한 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 오건해 여사와 극진히 간호하여 김구 선생을 회복하게 하였던 독립운동가이다.

신순호는 5살 때인 1926년에 어머니 오건해와 함께 상하이로 망명하여 아버지 신건식과 극적으로 상봉한다.

임시정부의 안살림꾼으로 유명한 정정화의 회고(<장강일기>)에 따르면 고운 용모의 신순호는 임시정부에서 일하던 여러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영준과 신순호 집안은 부모 사이에 교류가 긴밀했던 관계로 일찍이 인연이 맺어졌다고

31) 남목청 사건은 1938년 5월 7일 후난성 창사 남목청에서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의 통합을 논의하는 회의장에 조선혁명당의 이운한이 돌입하여 권총을 발사하여 김구·현익철·유동열이 중상, 이청천이 경상을 입었다. 현익철은 입원 즉시 사망하였다. 김구는 심장 옆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과다출혈로 인하여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절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김구는 총격 직후 4시간 이상 방치되었다가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되었다. 병원 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이후 가슴에 남아있는 총알로 인해 움직임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그의 글씨체는 떨려서 구부러진 글씨를 썼는데 이를 일명 총알체라 한다. 김구는 이운한의 공범으로 강창제(姜昌濟), 박창세(朴昌世)를 지목하였다.

한다. 박찬익과 신건식의 형 신규식은 1909년 <공업계> 발간 때부터 사장 겸 편집인(신규식)과 발행인(박찬익)의 관계로 만나 일찍이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형 신규식이 1922년 사망한 이후는 물론 박영준과 신순호가 결혼한 이후에도 신건식은 박찬익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두 집안의 긴밀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 중앙군관학교 졸업 당시의 박영준(가운데, 1939)

박영준과 신순호도 결혼하기 전부터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1938)와 한국광복군(1940)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지였다. 1938년 10월 임시정부 요인과 한인 동포들을 태우고 피난 가던 기차가 일본군의 기관총 공격을 받았을 때도 부상당한 박영준을 옆에서 지킨 이가 바로 신순호였다. 박영준은 1939년에 임정의 계획에 따라 중국중앙군관학교 특별 훈련반 교통과에 입교하여 1941년에 중국중앙군관학교 제17기로 졸업하였다. 군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그는 광복군 제3지대에 배속되어 지대장인 김학규 수하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

신순호도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립되자 오광심·김정숙·조순옥과 함께 여군으로 참가하였다. 신순호는 한국광복군 선전활동 및 임시정부 외무부에서 중국 중앙방송국의 한인 상대 한국어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박영준과 신순호는 1943년 12월 12일 충칭 임정청사 대례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박영준의 회고에 따르면 "이 당시 중경의 한인 사회는 40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동지 간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다소 드문 일이기도 했다. 결혼식장인 임시정부 강당은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가족들과 중경에 있는 한인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고 한다.



박영준-신순호 부부의 결혼증서(1943)³²⁾



박영준-신순호 부부의 결혼사진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상하이로 와서 생활한 덕분에 중국어에 능통했던 신순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에서 정보과원으로 활동해온다. 이런 능력 때문인지 해방이 되었음에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인 동포의 귀국 문제를 중국과 외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 임무를 맡게 된다. 난징에서 교민들의 귀국 업무를 담당하다가, 1948년 4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귀국할 수 있었다.

부부가 살던 집에서 1970년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당시 한전 사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박영준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데 신순호는 1층에 있던 유물이 담긴 두 개의 께깍을 밖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한다. 께깍 속에는 박영준·신순호 부부의 결혼증서를 비롯하여 박찬익·신건식의 독립운동 관련 유물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6·25 전쟁 때도 목숨처럼 소중히 지켰던 이 유물들은 역사교사였던 딸 박천민이 2014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를 이은 나라 사랑 덕분에 귀중한 독립운동 관련 유물 2,129점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세상에 공개되었다.

32) 붉은 비단에 파란 글씨의 결혼증서에는 주례는 백범 김구, 조소앙은 증혼, 민필호와 엄항섭은 소개를 하였다고 적혀있다.

4) 독립운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오광심



애국지사 김학규의 묘 원편에 작게
‘배위 오광심’이라고 적혀 있는
과거 현충원 묘역.
독립유공자/50-1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지 37년 만에 남편 김학규와 나란히 이름이
새겨짐 (201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날에는 오광심과 조순옥, 김정숙과 지복영 등 4명의 여성 광복군도 함께 참석했다. 현재 국립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는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 오광심과 신순호, 오희영 등 세 분이 안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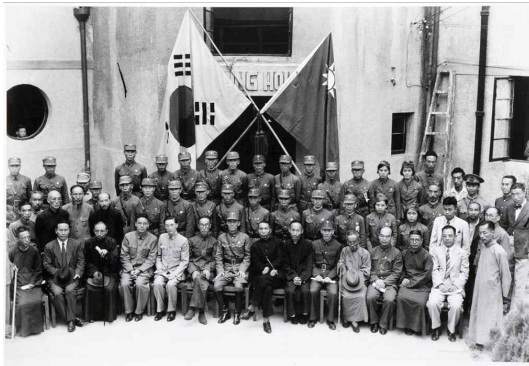
한국 광복군 3지대장이었던 김학규 장군을 만나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오광심은 중국 정부의 조선혁명군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연락 임무 외에 특히 독립운동계열의 통일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의열단·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인독립당 등이 연합하는 민족혁명당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남편 김학규가 작성한 대량의 보고서를 난징에서 만주 조서혁명당 본부에 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200장에 달하는 보고서를 그대로 암기하여 구술로 보고하였다.

<님 찾아가는 길>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쌓여도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어라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어라
어두운 밤길에 준령을 넘으며
님 찾아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해라
님 찾아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해라
험난한 세파에 괴로움 많아도
님 맞을 그 날 위해 끝까지 가리라
님 맞을 그 날 위해 끝까지 가리라

여성독립운동의 만언니로 불리면서 여성들을 독립군으로 조직하는 활동도 주도했던 오광심은 남편 김학규가 사망한 1967년 이후 9년 만에 서거하여 지금의 애국지사 묘역에 합장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안장되는 과정에서 오광심은 독립유공자로 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애국지사 김학규의 부인 자격으로 배위 합장됐던 것이다.

오광심의 독립운동 행적이 명확한데도 당시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남편 김학규의 원편에 '배위 오광선 합장'이라고 조그맣게 새겨진 형태로 존재하였던 묘비가 나란히 이름이 새겨진 형태로 바뀐 것은 오광심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무려 37년이 지난 2014년의 일이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에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죽어서 현충원에서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1940. 9. 17)에 참석한
독립운동가 오광심과 김학규(3열 우측)



조선혁명군 활동에 참여하다 부부가 된 오광심과
김학규 선생

5) 영화 <암살>의 전지현의 롤모델 남자현(1872~1933)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의 묘, 독립유공자 묘역/41



영화 <암살>에서
안옥윤(전지현)의 롤모델이
되었던 순국선열 남자현 지사

남자현 지사는 영화 <암살>(2015)의 주인공 안옥윤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다. 남자현은 1925년 국내로 잠입해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점에 주목하여 영화 <암살>의 주인공 안옥윤이 탄생했다. 순국선열 남자현의 묘에는 남편 김영주도 함께 안장돼 있다. 남편 김영주는 1896년 영양의병장 김도현 의진에 의병으로 참전해 일제에 맞서다 전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남자현은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남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내부의 갈등을 풀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32년, 일제의 침략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만주에 국제연맹조사단(단장 리튼 경)이 오자 '일제가 조선민중의 의사에 반해 조선을 식민지화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혈서로 '朝鮮獨立願'(조선독립원)이라고 쓴 흰 천에 잘라낸 왼손 무명지 2절을 함께 싸서 전달한 사건도 유명하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여자 안중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기도 했다.

1933년 주만주국 일본전권대사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던 중 일제에 잡힌 남자현은 17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중국화폐 248원을 내놓은 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독립축하금으로 이 돈을 희사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사망했다. 이 유언에 따라 아들 김성삼은 1946년 3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3.1절 기념식에서 이를 실행하였다.

6) 임시정부 요인을 뒷바라지한 오건해(1984~1963)

오건해는 남편이자 동지였던 신건식(1889~1963)과 함께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돼 있다. 오건해는 사위 박영준의 회고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치고 오건해 여사의 음식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은 오건해 여사는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낸 분"이었다. 오건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과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를 도맡았다.

특히 김구가 창사에서 총격을 당해 사경을 헤맨 이른바 '남목청 사건' 때도 오건해가 백범 김구를 돌봤다. 이때 현익철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유동열, 이청천과 함께 총상을 당한 김구도 이때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사건 직후 김구를 진찰한 중국 의사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문간방에 방치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김구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면서 응급 치료가 진행됐고, 회생할 수 있었다. 김구가 퇴원 후 요양할 때 식사 등의 뒷바라지를 맡은 것도 오건해였다.

오건해는 1940년 6월 17일 충칭에서 창립된 한국혁명여성동맹의 일원이었고, 1942년부터는 한국독립당원으로 참가해 활동했다. 그럼에도 오건해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남편 신건식이 1977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데 반해 늦어도 한참 늦은 2017년의 일이었다.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2017년에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애국지사묘역의 묘비명도 "배위 오건해 합장"에서 "애국지사 오건해"로 바뀜.
독립유공자 묘역/189-1



독립운동에 헌신한 자신에 대하여 저술한<서간도 시종기>를 쓴 이은숙은 "순국선열 이회영의 묘"라고 새겨져 있고, 원편에 "배위 이은숙"이라고 조그맣게 새겨져 있다가 2021년 3월 전면 교체되었다.
독립유공자 묘역/150

7) 광복군 자매 오희옥, 오희영을 낳은 독립운동가 정정산(1900~1992)

정정산은 남편 오광선(1896-1967)과 함께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남편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조중연합군을 형성해 일본군을 궤멸시킨 1933년의 대전자령 전투에 지청천 장군과 함께 참전하기도 했다. 오광선의 아버지인 오인수도 의병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8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감옥에서 나온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이 있는 만주로 망명한 정정산은 1935년까지 만주 길림성 일대에서 독립군 비밀 연락임무를 수행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북만주에 있을 때 광복군으로 활약한 오희옥, 오희영을 낳는다.

1935년 이후에는 중국 난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한편, 1940년에는 한국혁명여성동맹 결성에 참여해 맹원으로 활동하고 한국독립당 당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런데 애국지사묘역 정정산의 묘비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1992년 돌아가시면서 이미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돼 있던 남편과 함께 합장됐는데, 기존 묘비에 '배위애국지사 정정산 합장'이라는 문구를 왼편에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나마 2020년 10월에 이르러 오광심-김학규 부부, 오건해-신건식 부부 등과 같이 부부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넣은 묘비로 모두 바뀌었다.



묘비 가운데에 "애국지사 오광선의 묘"라고 새겨져 있고, 묘비 왼편에 "배위 애국지사 정정산 합장"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2020.10월 드디어 부부 이름이 나란히 새긴 형태로 묘비 수정이 이루어졌다. 독립유공자 묘역/36-1

8)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오희영(1924~1969)

오희영은 한국광복군에서 함께 활동한 동지이자 남편인 신송식(1914~1973)과 함께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돼 있다. 북만주에서 독립운동가 정정산-오광선 부부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난 오희영의 할아버지는 의병장 오인수로 생존해있는 여동생 오희옥(1926~)과 함께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오희영은 불과 열여섯의 나이에 오광심·김효숙 등과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1939)에 입대하여 활약했고, 1940년부터는 한국광복군에도 참여했다. 오희영이 광복군에서 한 역할은 오광심과 더불어 제3지대가 있던 중국 푸양에서 일본군에 징병된 한국인 사병을 탈출시키는 초모공작 활동이었다.

1944년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 충칭으로 이동한 오희영은 한국독립당에 가입한 뒤 광복이 될 때까지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 차리석 선생의 회갑 잔치에 참여한 오희영 가족. 4열에 모친 정정산, 2열에 여동생 오희옥, 1열에 남동생 오영걸의 모습이 보인다. 출처, 독립기념관 블로그, <2020. 4월의 독립운동가 편>



김구 주석 경호대장이었던 신송식과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하였던 오희영의 묘. 독립유공자 묘역/147-1

9)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세계에 알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1889~1970)



프랭크 스코필드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나 1907년 캐나다로 이민간 후 토론토대학 온테리오 수의과를 졸업하였다. 1916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교장으로 있던 에비슨(Avison, O. R.)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로 강의를 하면서 1917년 한국어 시험을 보아 합격하고 선교사 자격도 받았다. 한국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성을 음차하여 석호필(石虎弼, 단단하고 무섭고 남을 돕는다는 자신의 철학이 담김)이란 한국어 이름을 가졌다.

1919년 초 미국에서 온 샤록스(Alfred M. Sharrocks)로부터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할 것이라는 소식에 따라, 미국에서 이승만,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갑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모종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주어 3.1운동을 지피는데 한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현장과 실상을 꼼꼼이 기록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을 외국인 신분을 이용하거나 조선총독부 간부와의 친분 관계를 도용하여 구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암리 양민학살³³⁾이 일어나자 스코필드가 몰래 방문하여 총살, 방화 현장을 촬영하였다. 부근의 수촌리, 화수리의 방

33) 1919년 4월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암리교회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1919년 3월 31일 발안 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후 계속되는 시위에 대한 경고와 보복으로, 일본 육군에 의해 민간인 29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의료선교사 스코필드와 언더우드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1982년 교회가 있던 터가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다

화 만행 현장도 둘러보고 귀경하였다.

스코필드는 언론 활동 통해 일제의 만행을 해외와 국내에 고발하는 활동을 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을 돕는 스코필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1920년 강제 출국시켰다. 그는 이때에도 총독에게 탄원하여 감옥에 갇혀있던 이상재(李商在), 이갑성(李甲成), 오세창(吳世昌) 등을 면회하고 격려하였다.



스코필드와 한국어 교사 목원홍 출처: 독립기념관



스코필드가 작성한 『제암리의 대학살(The Massacre of Chai-Amm-Ni)』 보고서와 사진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영자신문 『상하이 가제트(The Shanghai Gazette)』 1919년 5월 27일자에 서울 주재 익명 특별통신원 (Special Correspondent)이 4월 25일 보내 온 기사로 실렸다.

그는 캐나다로 건너가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을 수 차례 방문하며 한국을 잊지 못했다. 그의 3.1운동 역사 기록과 사진을 한국에 기증하여 보도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하였고, 1969년부터 한국에 영구 정착하여 여생을 한국에서 마쳤다.

외국인 최초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58년 대한민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에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고,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3.1 운동의 산증인으로 해방 이후에도 계속 기억되고 있는 스코필드 관련 동아일보 신문 기사³⁴⁾들,

- 1) 동아일보 1962.3.2.
- 2) 동아일보, 1963.2.28.
- 3) 동아일보, 1969.2.28.



외국인 최초 서울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스코필드의 묘/
독립유공자묘역 96

34) 스코필드는 3·1운동의 산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3·1정신의 전도자였다. 한국에서 거의 해마다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언론과 잡지에 3·1운동을 회고하고 3·1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을 것을 권고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1963년 3·1절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1919년 3월 1일과 1963년 3월 1일」, 1966년 『The Feel of Korea』에 실은 「1919년 3월 1일, 삼일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69년 3·1절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하나로 뭉친 독립만세」
[네이버 지식백과] 스코필드 [Frank William Schofield, 石虎弼] - 건국훈장 독립장 1968, 한국을 조국처럼 사랑한 캐나다인 (독립운동가, 김승태, 이달의 독립운동가)

무후선열제단

■ 무후선열제단 소개

무후선열제단은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위쪽(충열대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구한말 때의 의병 활동 및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분들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이 없는 선열 130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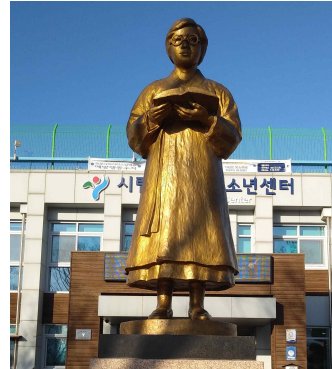
■ 무후선열제단에는 어떤 인물들이 안장되었을까?

대표적인 인물로는 1919년 3·1독립운동의 횃불을 전국 방방곡곡에 비춘 유관순 열사, 고종황제 밀서를 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이위중 열사, 역사에 길이 남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홍범도 장군, 정의부 총사령 오동진 장군 등 115위가 모셔져 있고, 정인보·조소앙·엄항섭 등 납북된 독립유공자 15위도 함께 모셔져 있다.

1) 조선의 혁명 여걸, 정신여고 수학교사 김마리아(1891~1944)



김마리아 사진



대방동 보라매 공원에 세워진
김마리아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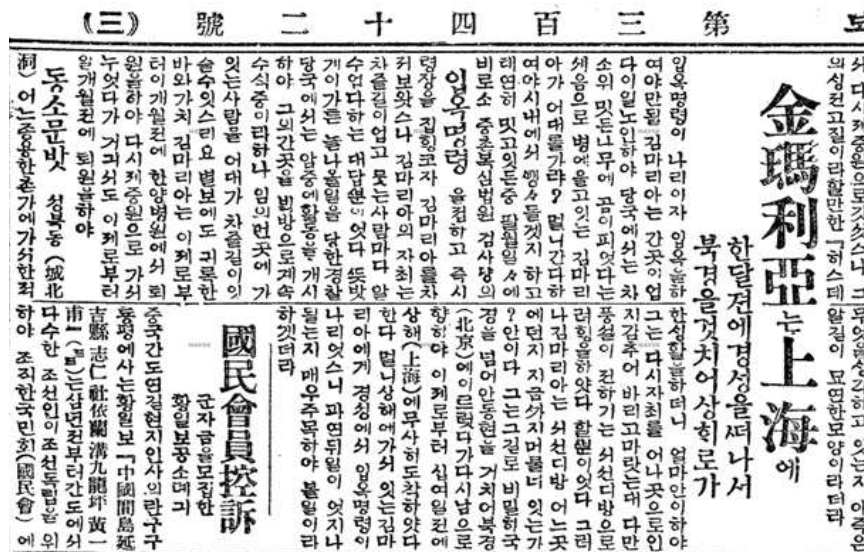
김마리아는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만석꾼으로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등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삼촌인 김필순은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김규식의 부인이자 고모인 김순애는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1906년 이화학당에 진학하였으나 연동여학교(정신여학교)로 전학하여 1910년 졸업하였다. 그 후 전남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1913년에는 정신여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1918년 말경 동경유학생들로 조직된 조선청년독립단에 가입하였으며, 1919년 2·8독립선언에 적극 가담하여 <독립선언서> 수십 장을 몰래 숨겨 귀국하였다. 3·1 운동 준비를 위해 서울 정신여학교에 잠입하였다가 경찰에게 피체되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해 8월 석방되어 다시 교사로 재직하였다.

김마리아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즉시 정신여학교 기숙사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출옥 후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의국부인회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금, 독립선언문 배부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12월 대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요양하다 탈출,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상하이에서 여성 최초로 임시의정원 의원 등으로 활약하다가 1923년 미국유학을 떠나 1932년에 귀국하여 원산의 마르타 윌슨 신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44년 고문후유증이 악화되어 평양에서 서거하였다.

현재 김마리아가 졸업하고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예전 정신여고와 연동교회가 있던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현재 김마리아길이 조성되어 ‘나는 대한독립과 결혼했다’는 혁명여걸 김마리아의 생애를 되짚어볼 수 있다.



김마리아의 탈출을 보도한 <동아일보> 1921년 8월5일자 기사



2·8독립선언서 (1919.2.8 출처: 독립기념관)



김마리아의 위패(무후선열제단-18)

2) 무후선열제단에 모셔진 여성 독립운동가 안경신

• 임신 중에도 무장투쟁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안경신

국립 서울현충원의 애국지사묘역 위에 위치한 무후선열제단에 안장되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무후선열 115위 중 안경신, 김마리아, 유관순 등 여성 독립운동가 세 분의 위패만이 발견된다. 그중 안경신은 3·1운동에 참여한 후 대한애국부인회에 가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으며, 확고한 무장 투쟁론자답게 대한광복군 총영에 가담하여 1920년 미국의원시찰단이 한반도를 방문하려고 할 때 평양에서 폭탄거사를 실행한 인물이다.

이때 안경신은 임신 중이었음에도 평양으로 침투하여 평남도청과 평양경찰서, 평양부청에 폭탄을 투척하여 조선인들이 일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사건 직후 다른 대원들과 함께 만주로 복귀하지 못하고 안경신은 국내에 은신해 있다가 이듬해인 1921년 3월 출산한 지 12일 만에 일경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안경신은 2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면서 1927년까지 복역했다.

함께 송죽회에서 활동했던 최매지(최금봉, 1896-1983)는 안경신의 확고한 항일투쟁 의지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독립운동가가 많고 여성투쟁가도 수없이 있다. 그러나 안경신 같이 시종일관 무력투쟁에 앞장서서 강렬한 폭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친구는 처음 보았다. 너무 강폭한 투탄 폭살 투쟁으로 오히려 해를 받는다면 항일투쟁에 가담하지 아니함만 같지 못할 게 아니냐고 물으면 그녀는 잔잔한 미소만 띠고 긍정하지 않았다.”



무후선열제단의 여성독립운동가 안경신과 무후선열/047, 김마리아의 위패 무후선열/018.



무후선열제단 독립운동가 115위의 위패 중 단 3위 만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위패이다.

3)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이동휘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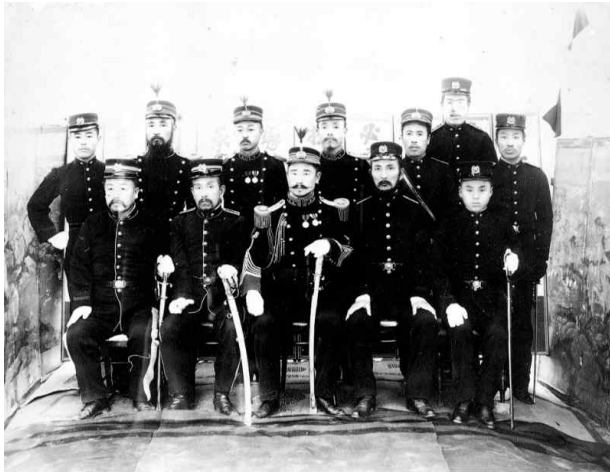
1873년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다. 1903년 5월 국방요충지인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부임하여 강화도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합일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04년 대한협동회에 참여하여 일제의 토지침탈에 반대하였다. 1905년에는 윤명삼, 유경근 등과 보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운동에 헌신하였다. 1911년에는 일명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탈출하여 1913년 2월경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이때 김립, 계봉우 등과 함께 민족주의 교육활동과 선교사업을 전개하였다.

1913년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권업회(勸業會)에 참여하여 한인 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쳤다. 1914년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고 중국 왕청현 나자구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1917년 2월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볼셰비키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18년 5월 하바로브스크에서 김알렉산드라³⁵⁾, 유동열, 김립, 오성묵 등과 함께 최초의 한인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³⁶⁾을 창당하였다.

1919년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하였으나 볼셰비키 정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금을 한인사회당에서 유용한 것이 발미가 되어 상해임시정부를 탈퇴하였다.

35) 1917년 초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러시아공산당 전신)에 입당하였다가 1918년 4월 이동휘·김립·박애(·오성묵 등이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동맹을 결성할 때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알렉산드라는 이동휘 등이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레닌과 관련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볼셰비키였다.

36) 이동휘, 김알렉산드라(본명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등이 러시아 연해주의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한인사회당은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강화도 진위대장 시절 간부들과 찍은 사진
(사진 중앙 이동휘 참령)
출처 : 강화군청 보도자료-100주년 3.1절 기념 기획전 개최



이동휘 가족사진
(이동휘, 장녀 인순, 이승교, 아들 영일,
차녀 의순, 강정혜, 삼녀 경순)
출처 : 독립기념관

5) 무후선열제단의 남북인사들

애국지사묘역 위쪽에 위치한 무후선열제단 왼편에는 김규식, 조소앙, 유동열, 오화영, 윤기섭, 안재홍, 박열, 최동오, 정인보 등 16명의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에 의해 납북된 인사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1881~1950)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인 삼균주의(정치·경제·교육에 있어서의 완전한 균등)를 제창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을 마련한 헌법의 아버지 조소앙(1887~1958)선생, 영화 <박열>로 유명한 ана키스트 박열(1902~1974) 등 그야말로 쟁쟁한 인물들이다. 남북 직후 전쟁 중에 사망한 김규식과 유동열 등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북한에서 1956년에 결성된 재북평통(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소앙·안재홍 등이 주도한 재북평통은 결성대회에서 ‘남북정권당국과 국회, 모든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애국 인사들은 평화적인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설기관을 수립할 것’, ‘남북총선거에 따라서 통일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제의했다. 재북평통은 북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남북한 중립노선을 견지하면서 중립화통일방안에 기반한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지향적인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들 남북 인사들의 경험과 역할은 분명히 재조명되어야 한다.

무후선열제단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남북인사 중에 최동오(1892~1963)도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독립운동가이다. 정의부와 조선혁명당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이 한 집안의 삶을 어떻게 굴절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최동오의 아들 최덕신(1914~1989)도 한국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다. 해방 이후 국군 창설과정에 참여했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는 외무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런데 박정희와 갈등을 빚다가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1983년에는 아버지 최동오가 묻혀있는 북으로 들어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죽을 때까지 살았다.

최덕신의 부인 류미영(1921~2016)의 아버지는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을 지낸 무후선열제단의 남북인사 유동열(1879~1950)인데, 남편에 이어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을 역임해 북한에서 고위인사로 장기간 활동했다.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둘째 아들 최인국도 지난 2019년 7월초 돌연 북한으로 망명했다.

납북인사는 아니지만, 무후선열제단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인물 중 정의부 군사위원장 겸 총사령이었던 오동진 장군(1889~1944)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동진 역시 북한의 애국열사릉에도 묘가 조성돼 있어 남과 북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로 김형직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1926년 김형직이 사망한 이후 어린 김일성을 정의부가 운영하던 화성의숙에 입학시킨 것도 오동진과 최동오였다고 한다.

영화 <박열>로 잘 알려진 박열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

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의 와중에 천황을 폭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른바 ‘대역사건’으로 인해 그는 1945년 10월 27일 석방될 때까지 2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옥살이를 치러야 했다.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의 초대단장을 맡았으며, 1949년 영구 귀국했다가 한국전쟁으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17일 서거하여 현재 그의 유해는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하지만 항일투쟁과 신조국건설에 끼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은 남북한 양쪽을 비롯해 고향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무후선열제단 왼 편에는 납북인사들의 위패가 놓여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박열의 묘는 북한의 평양 재북인사 묘역에 있고 가네코 후미코의 묘는 박열의 고향 문경에 있다.

임시정부요인묘역

■ 임시정부요인 묘역 소개

대한민국 임시정부³⁷⁾는 1919년 중국 상해에서 4월 11일에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수립이후 인류평등·민족평등·국가평등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1941년 건국강령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고, 1944년 새 헌법에 반영되어 광복한국의 기초이념으로 다져졌다. 그리하여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기간에 일제와의 어떠한 흥정도 배격하고 자치론이 부정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에 이승만이 제기한 바 있었던 위임통치론이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것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완전독립이념 때문이었다.

1942년부터 제기된 한국의 국제관리설(신탁통치)을 철회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도 완전독립 또는 절대독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임시 공휴일이 추진될만큼 최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최근 의미있는 기념일³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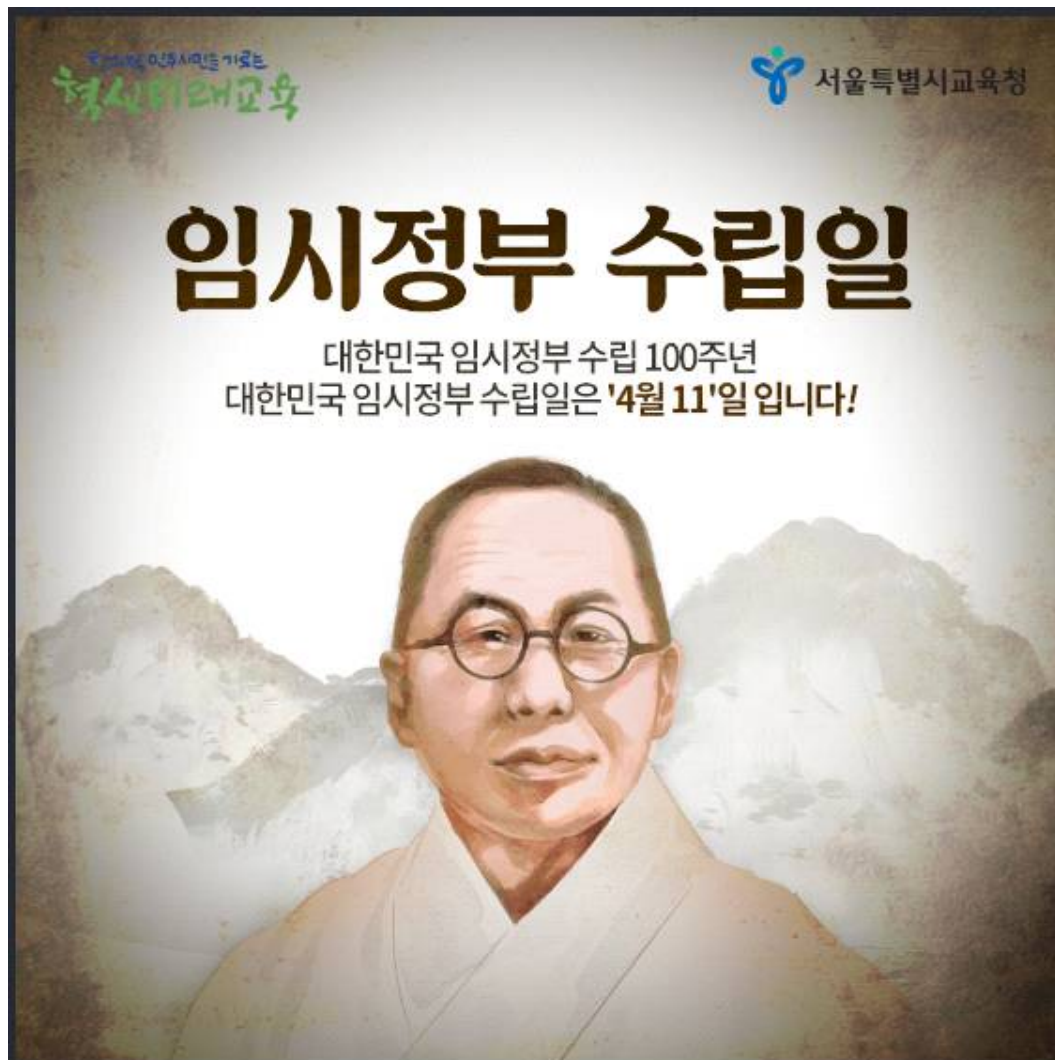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1993년 상해만국공묘에 안치되어 있던 상해 임시정부 요인 5위의 영현을 환국봉안하면서 임시정부요인 묘역을 조성하였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은 총 16,393m²의 부지 위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총 18위의 임시정부 요인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

37) 임시정부란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를 가리킨다.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주권국민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해에서 조직하였다.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각처에서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다. 다만 정부라고 하면 국제법상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통치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었으므로 일반 정부와는 성격이 달랐다. 상해 임시정부는 시간적 연속성이 없고 주체세력이 다르고 이념이 달랐으므로 대한제국의 망명정부가 될 수 없었다. 전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였으므로 전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기반 위에 설립된 정부적 조직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의 구실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3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 정부는 1989년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는 역사자료를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2018년 4월 확정 발표했다

■ 임시정부에는 어떤 인물들이 안장되었을까?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묘역에는 「한국통사」로 민족혼을 일깨웠던 박은식 대한민국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비롯해 외무총장을 역임한 신규식, 의정원의원 및 서로군정서 참모장을 역임한 김동삼, 군무총장 및 정의부 총사령을 역임한 지청천 등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 출처: 서울시교육청블로그 <서울교육의 나침반>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

1) 대중교 출신 부자(父子) 독립운동가 박찬익(1884~1949)



박찬익의 묘(임정묘역-12)

1884년 경기도 파주(坡州)에서 태어났다. 1902년 심탄실과 결혼한 후 둘 사이에서 태어난 박영준은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다. 박찬익은 서울 관립 상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일본인 교사에게 반항하다가 퇴학당하고 상공학교 동기생인 박호원의 추천으로 보안회에 가입하여 일본의 황무지개척요구안 반대투쟁에 참여하였다.

신민회에 가입하고 1908년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전신인 관립공업전습소에 입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일제에 강점당하자 만주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였다. 북간도에서 독립운동가 이상설, 백순, 나철의 지도로 대중교 교인이 되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상하이로 건너가 신규식과 함께 1912년 7월에 동제사를 조직하여 박은식을 총재로 추대하였으며, 신채호, 김규식, 이광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심기구로 발전시켜 나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다. 1921년에는 임시정부 외무부 외무차장 대리로서 외교임무를 전담하였으며 주로 대중국 외교에 주력하였다. 특히 중국 국민당의 쑨원(孫文)이 광둥(廣東)에 중국호법정부(中國護法政府)를 수립하자 외교총장 신규식을 수행하여 임시정부를 승인받는데 기여하였다. 윤봉길의 홍커우공원 의거 후 임시정부 요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여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1933년 김구와 장제스(蔣介石)의 회담을 추진하였다.

1940년 임정이 충칭(重慶)으로 옮긴 뒤에는 법무부장,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어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의 중책을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장(駐華代表團長)으로 중국에서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이들의 귀국을 주선하였다. 1948년 4월 16일 귀국하여 대중교 간부로 활동하다가 1949년 3월 9일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사돈 관계이던 박찬익(오른쪽)과 신건식



1945년 임시정부 단체사진(뒷줄 왼쪽 첫 번째가 박찬익)

2) 국립묘지엔 묻지 말라던 임정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1900~1993)



조경한의 묘(임정묘역-13)

1900년 7월 30일 전남 승주군(순천시) 주암면 한국리 한동 마을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조종현(趙鍾鉉)이고, 호는 백강(白岡)·일청(一靑), 이명을 안훈(安勳) 또는 조경한(趙擎韓)이라 하였다. 독립운동을 할 때는 안훈이나 정일청이란 이름을 썼으나 귀국 후에는 조경한이란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찍이 만주로 건너가 독립단, 배달청년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후반부터 신채호, 여준, 김동삼, 정신 등 명망가 및 대중교 계열의 인물들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말경 신채호가 혁명가에게는 가명이 필요하다며 '백강(白岡)'이라는 호와 '경한(擎韓)'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백강은 백두산의 산등성이를 의미하고, 경한은 조국(한국, 대한민국)을 받들고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다. 1930년 한족자치연합회를 모체로 하는 한국독립당이 동북만주 지역에서 의병, 유림, 대중교 출신 독립투사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자 그 창립요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이청천, 유동열, 김학규 등과 같이 활동하였으며, 그는 선전위원장에 임명되어 조직 및 훈련의 책임을 맡았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이청천, 김창환, 황학수 등은 한국독립군을 일으켜 동북만주 각지에서 일군과 전투를 벌였다. 1932년 3월에 그는 이규보, 이종의 등과 함께 중국군 사령관 고봉림을 방문하고 한중 군사협약을 약속하여 연합작전을 폈다. 연합군은 1932년 9월 하얼빈과 장춘선의 요지인 쌍성보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중국군의 반란으로 이 성을 다시 적에게 내주게 되었다. 이에 독립군에서는 그와 김창환 등을 북만에 보내어 흩어진 사병을 수습케 하고 다시 쌍성보를 공격하여 11월 17일 쌍성보를 재탈환하였다. 1933년 6월에는 대전자 전투 등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만주에 일제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이 수립되고 일본군이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되자 독립군은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다. 1933년

5월 낙양(洛陽)군관학교교관에 임명되었고 총책임자에는 이청천이 취임하게 되어 많은 간부를 양성하였다. 1933년 겨울에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한국혁명당이 통합하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조직하였는데 그는 윤기섭, 이청천과 한국혁명당 대표로 참여하였다.

1935년 7월, 5개 정당·단체가 통일을 이룬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자 이에 참여하여 조직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에서 김원봉 계열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1937년 4월에는 지청천, 최동오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탈당해 만주에서 이동해온 김학규 등과 새로 조선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그는 조선혁명당의 상무위원 겸 조직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37년에는 김구, 이동녕, 이시영, 조소앙 등과 함께 국민당, 한국독립당 및 미주지역에 산재한 6개 민족주의 단체를 연합하여 일관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복진선(光復陣線)을 조직하였는데 그는 항일선전에 주력하는 선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1939년 10월에는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에 선출되어 1944년까지 의정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1940년 5월에는 충칭(重慶)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강력한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3당(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통합운동을 벌여 민족진영의 정당 단체를 연합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1940년 9월에는 한국광복군의 창군에 참여하여, 총무처장 대리 등에 임명되었다. 1941년 10월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정훈 조장을 맡아 무장독립운동 활동과 관련 지원 임무에 주력하였다. 1943년 3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부비서장, 1944년 2월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44년 3월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집행위원, 훈련부장을 맡았다. 이 해 10월 임시정부 국무원 국내공작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의 요직을 맡아 1945년 8월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광복 이후 행적으로는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후 박정희의 부탁으로 민주공화당 수석고문직을 맡기도 하였다. 1963년 6대 국회의원, 1981년 독립유공자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한 때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였으며 서달산에 세워진 장봉옥³⁹⁾ 영모비의 비문을 지었다. 영모비 비문은 “나라사랑반”이 자선사업을 적극 벌인 장봉옥의 1주기에 즈음하여 세우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조경한 선생에 글을 부탁하여 썼다고 한다.

1982년 4월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1993년 별세할 당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가득한 국립묘지에 묻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유언과는 다르게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안장되었다.

39)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1961년 서달산 주변에 백운암을 건립하고 인근에 ‘나라사랑반’이라는 명칭으로 160여 채 규모의 연립주택을 지어 전몰군경 유가족과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1964년 무렵에는 상조장학회를 조직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였다.

3) 불령선인의 소굴, 평양숭실대학교에서 손정도 목사와 김형직이 만나다



손정도 목사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숭실대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선교사로 파견된 배위량(W. M. Baird) 박사가 1897년 10월, 평양에서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자신의 사랑방에 중학과정을 개설하면서 시작된다. 대학부가 설치된 것은 1906년부터인데, 숭실전문 시절인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면서 폐교될 때까지 숭실의 역사는 불령선인의 소굴이라고 총독부에서 부를 정도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다.

그중 손정도 목사(1882~1931)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회의장 격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냈다. 그런 손정도 목사가 북한의 김일성과 각별한 관계를 맺은 것은 만주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1920년대 말이었다. 숭실중학교 2년 선배이던 김형직은 "어머니를 모시고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라"고 유언을 남겼고, 1926년 김일성은 길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를 찾아갔다. 손정도 목사는 이미 평양 숭실 출신의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조선국민회를 조직했다가 옥사한 장일환(1886~1918)으로부터 김형직을 소개받아 알고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김형직의 아들 김일성이 찾아오자 3년 간친자식처럼 돌봤다. 김일성이 만주 군벌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는 힘써 석방시킨 까닭에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손정도 목사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 생명의 은인"으로 묘사했다.

손 목사 자녀들과 김일성은 형제처럼 지냈는데, 큰아들 손원일은 해외에 유학 중이었던 관계로 두 살 어린 둘째 아들 손원태가 친형처럼 따랐다고 한다. 미국에 살던 손원태는 팔순 잔치를 평양에서 치렀고, 2005년에는 북한의 국립묘지인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 2003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남한 학자들이 북조선 학자들과 손정도 목사를 기념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에 안장된 손정도 목사, 장군 제2묘역에 있는 큰아들 손원일 제독,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어있는 둘째 손원태 박사로 구성된 손정도 목사 집안의 역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밝혀내는 일 역시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마친 후(1919. 9. 17) (1열 우측 4번째가 손정도 목사, 좌측 4번째는 안창호 선생) 출처: 독립기념관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3.1 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에게 영향을 줌. 출처: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요인 묘역의 손정도 목사.
임시정부요인/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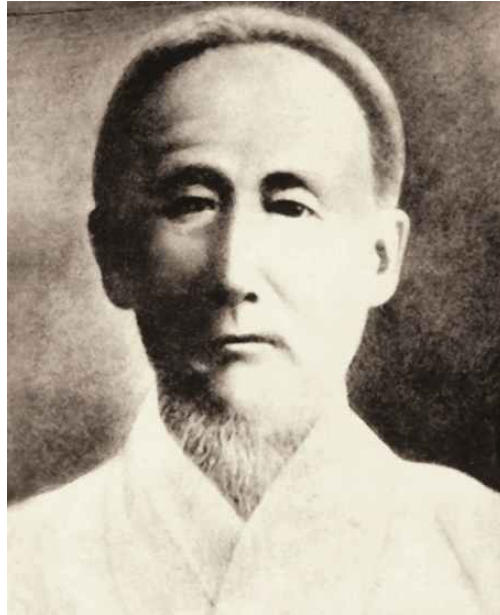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된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의 묘. 장군제2/5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손원태의 묘

4)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자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임시정부 요인 박은식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문에 능하여 신동으로 불렸다. 20세 무렵부터는 다산 정약용의 문인들과 교우하며 실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 개항을 극렬히 반대하던 보수 유림인 화서학과 문인들과도 교우하며 자주적인 민족 의식을 갖춰갔다.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한 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지식인들과 함께 만민공동회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장지연 등과 함께 <황성신문> 주필로 활동하며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된 후,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자강회의 <대한자강회월보>, 서우학회의 <서우> 발행을 맡는 등 활발하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에는 비밀결사 신민회를 결성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으나 1911년 일제에 의해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국체(國體)는 비록 망했어도 국혼(國魂)을 살리고자 역사서 집필에 나섰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해서 <동명성왕실기>, <발해태조건국지> 등에 이어 1915년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완성하였다.

1912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중국 관내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同濟社)를 결성하였다. 동제사는 한국의 독립운동 지사들과 중국의 신해혁명 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였다. 동제사를 통한 인연으로 한중간의 우호관계가 구축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1915년 북경에서 신한혁명당을 결

성한 그는 1917년 7월 신규식·조소앙 등과 함께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단결을 통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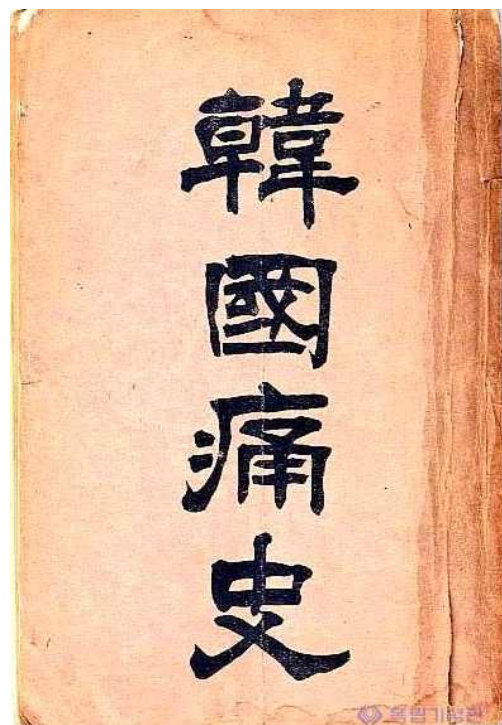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신문> 발행에 참여하고, 임정사료편찬회를 주도하며 독립운동사료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그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정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21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을 간행하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 항일 무장투쟁에 이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기술한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기도 했다.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으로 면직된 후,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할 어른으로 추앙되어 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바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임시대통령제를 개정하여 국무령체제 수립에 앞장섰다, 그리고는 만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인 석주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추천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70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임시정부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힘쓰던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1925년 11월 1일 이역만리 중국 상해에서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민족의 통일’을 촉구하였다. 상해 만국공묘에 70여년간 안장되어 있던 유해는 1993년 8월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충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묘역이 조성되었다.



황성신문 창간호, 박은식 선생은 1910년 8월 국권 피탈 시까지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출처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사(1915)를 저술함. 출처 : 독립기념관

5)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 이상룡, 임청각의 주인에서 임시정부의 주축이 되다



임시정부 요인 이상룡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58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 유림을 대표하는 집안의 장손으로 99간에 이르는 임청각⁴⁰⁾의 주인이었다. 영남학계의 거유인 김홍락에게 사사한 정통 유림이었으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침탈되자 본격적으로 구국운동의 길에 접어들었다.

안동의 대표적인 개혁 유림 세력인 유인식, 김동삼 등과 협동학교를 세워 근대교육을 실시하고, 1908년에는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여 애국강연, 회보발간 등을 통한 애국계몽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대한협회가 점차 친일적으로 전향해가자 새로운 독립운동의 찾아 1911년 가산을 정리하고 일가를 이끌며 중국 망명을 결행했다.

간도의 유하현 삼원보에 터를 잡고, 이회영, 이시영 등과 함께 독립군 기지개척을 시작하였다. 경학사를 통해 한인들의 경제토대 구축에 나서고, 신흥강습소를 세워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경학사는 부민단과 한족회로 발전하였고,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거듭났다. 1919년 한족회를 통해 군사기구인 서로군정서를 조직하고 군정서 독립관을 맡으며 만주 무장항일투쟁을 선봉에서 지휘하였다.

40) 1515년(중종 10년)에 건립하여 보물 182호로 지정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독립운동가 11명이 배출되었다. 일제는 중앙선 철도부설을 위해 50여간의 행랑채와 부속채를 철거하였으나 2018년부터 임청각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메트로신문 김귀열 기자(2021.3.30.)<임청각 복원 사업 '순항'>

출처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330500051>

그는 독립 달성을 위한 군사조직 결성과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1920년 초에는 북경에서 조직된 군사통일촉성회에 참가하여 군사기구 통합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922년 6월에는 중국 동삼성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시도하여 통의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 전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며 분열의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탰다. 1925년 임시정부의 지도체제가 국무령제로 바뀐 후, 첫 국무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만주지역 독립운동세력의 지도자로 역할하던 그는 국무령에 취임한 후, 임시정부의 분열을 막고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1926년 만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정의부·신민부·참의부를 비롯한 만주 지역 광복 단체의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5월 12일 중국 길림성 서란현에서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관철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거하였다. 만주 땅에 묻혀있던 그의 유해는 광복 45년만인 1990년에 봉환되었다. 대전 국립묘지에 임시 안장되어 있던 유해는 1993년 현충원에 임시정부 묘역이 조성됨에 따라 이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임청각 앞에 부설된 중앙선 철로의 모습 : 독립기념관



신홍학우단(신홍무관학교의 졸업생과 교사들의 동창회 성격의 독립운동 단체)학생들의 영농(백서농장) 모습. 출처 : 독립기념관

6) 신민회를 세웠던 독립운동가 양기탁 임시정부 주석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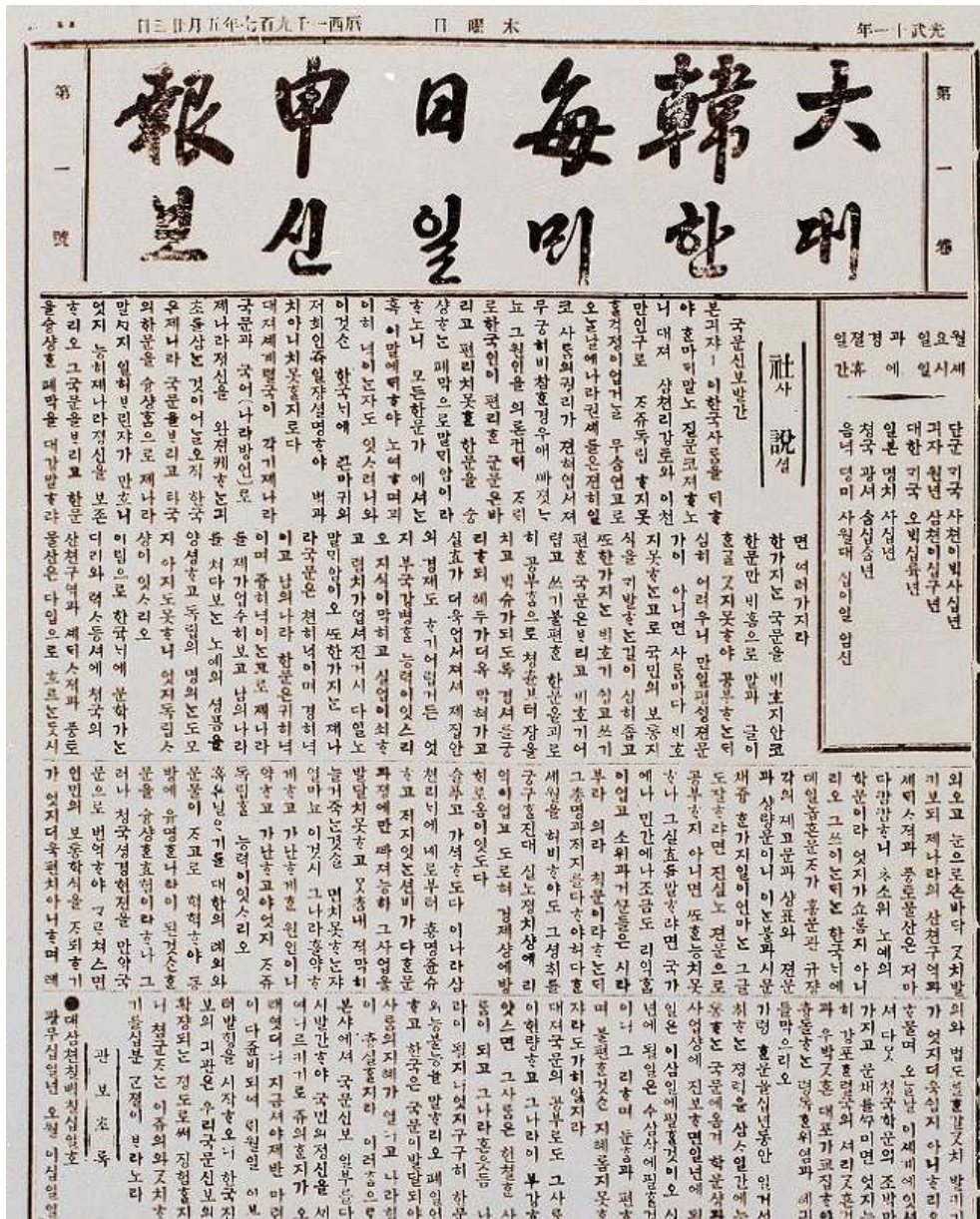


임시정부 요인 양기탁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71년 평남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아버지를 따라 유럽의 명망가들을 만나게 되어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6년 16세에 외아문의 제중원 학생 선발에 합격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 외국어학교에서 영어와 화학, 제약, 의학 등을 배웠으나 교수와의 갈등으로 6개월 만에 퇴교하고 이후 독학으로 영어를 익혀 개화파 청년이 되었다.

1892년부터 미국인 선교사 게일박사와 함께 《한영자전(韓英字典)》을 편찬하였으며, 1895년경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1896년 5월부터 1년 가량 나가사키 상업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1897년부터 독립협회에 참여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하였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는 외세의 부당한 국권 침탈에 반대하며 언론활동을 벌여 나갔다. 1899년 1월경 만민공동회의 시위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이승만 등과 구속되었다. 1901년 ‘사전주조(私錢鑄造)’ 혐의로 체포되어 태형 100도와 종신징역에 처해졌다. 옥중에서 이승만 등과 옥중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1903년 3월 출옥 후, 1904년 7월 황실의 지원을 받아 영국 데일리 뉴스의 임시특파원인 배셜(Ernest T. Bethell)을 사장으로, 양기탁을 총관리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베텔이 발행인이었지만, 양기탁이 신문 발간 일체를 관장하는 총관리인으로 실제적인 운영을 맡았다. 창간 초기에는 고종과 항일언론계의 가교 역할도 하였으나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이튿날 예식원을 사직하고, 신문 업무에 전념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의 명의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일제 통감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고, 일제의 부당한 침략 상황을 낱낱이 고발하고 비판하였다. 1907년 1월 16일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한 광무황제의 친서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거를 호외로 보도한 것도 대한매일신보였다. 이에 일제는 신문지법을 통해 한국을 강점하자마자 폐간시켜 버렸다.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창간호(1907.5.23.) 출처 : 독립기념관

양기탁은 1907년 안창호 등과 함께 비밀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新民會)⁴¹⁾를 창립하였다. 신민회는 철저한 비밀활동으로 회원을 모아가며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을 추진해갔다. 이를 알아챈 일제는 소위 데라우치 총독암살음모사건⁴²⁾을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105인을 투옥시켰다.

1916년 평안남도에서 유배를 당하던 중 탈출하여,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활동하였으나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끊임없이 일제의 감시와 처벌을 받으면서도 만주로 탈출하여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성단(義成團)을 조직하고, 1922년 통의부를 창설하는 등 독립운동을 쉬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에는 안창호가 주창한 민족유일당운동에 동참하여 통합운동을 추진하였다. 1934년 임시정부 국무령에 선출되었으나 연로한 탓에 건강이 크게 나빠져 1938년 4월 숨을 거뒀다.

41) 전국적인 규모로서 국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 독립운동 단체이다. 1907년 4월 안창호(安昌浩)의 발기로 양기탁(梁起鐸)·전덕기(全德基)·이동휘(李東輝)·이동녕(李東寧)·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최광옥(崔光玉)·이시영(李始榮)·이회영(李會榮)·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강(李剛)·조성환(曹成煥)·김구(金九)·신채호(申采浩)·박은식(朴殷植)·임치정(林蚩正)·이중호(李鍾浩)·주진수(朱鎭洙)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42) 일본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하여 독립운동가 105명을 체포한 사건. 데라우치 총독암살미수사건이라고도 한다. 1910년경 신민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여 애국계몽운동가들을 탄압함과 동시에 신민회를 제거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암살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웠고, 이에 따라 윤치호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600여 명을 검거했다. 105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최종 판결에서는 윤치호 등 6명에게 징역 5~6년형이 선고되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통해 신민회를 해체시키는 등 비밀항일단체를 제거했으나, 이와 연루되었던 많은 운동가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7) 임시정부 통의부 총장 김동삼



임시정부 요인 김동삼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78년 6월 23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태어난 김동삼이 살던 천전마을은 퇴계 이황의 학맥을 이은 명문집안 의성 김씨의 집성촌으로 안동 유림의 근거지였다. 그는 학봉 김성일로부터 퇴계학맥을 이으며, 안동 의병의 최고지도자였던 김홍락을 스승으로 모시고 유학을 공부했다.

1905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서울을 드나들며 민족문제와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사상적 변화를 보이다가 가장 보수적이었던 안동지역 계몽운동의 실마리를 풀어 나갔다. 전통 질서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안동에 혁신의 물길을 끌어들이는 작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힘들었다. 이미 10년 전에 서울에는 신식학교가 들어섰지만, 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는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림이 없었다.

1907년 고향으로 내려와 혁신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유인식과 협동학교를 세웠다. 한편으로는 비밀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와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1911년 숙부인 김대락과 함께 만주 망명길에 올랐다. 1911년 1월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걸어서 건너가 남만주 유하현 삼원포에 도착하여 신흥학교를 설립하고 경학사 결성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부터는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만주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심하고, 중국 동삼성(東三省)의 호칭을 따서 동삼(東三)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는 백서농장을 건립하고, 신흥학교 졸업생들을 인솔하여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1919년 2월에는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하였다. 이후 서간도 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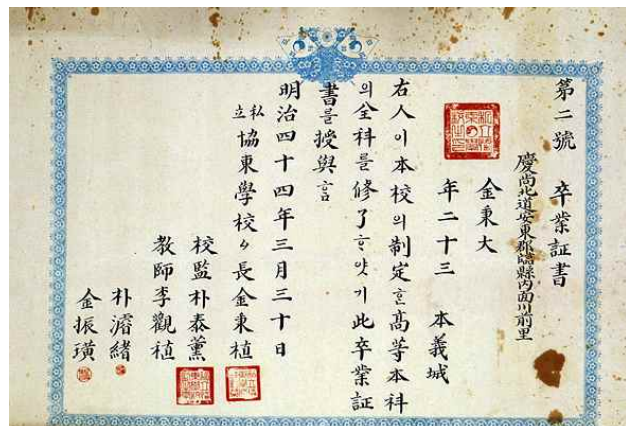
진영 통합 개편될 때에 한족회 서무사장과 서로군정서 참모장을 맡게 되었다. 만주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그는 수백 명의 독립군을 지휘하며 청산리대첩에도 기여하였다.

그러자 일본군은 전투에서 패하자 한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피의 보복을 시작했다. 그는 무너진 동포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러시아 한인사회와도 연계하여 국민대표회의 의장이 되었다. 1924년에는 만주 지역 3대 조직 중 하나인 정의부를 탄생시켰다. 1920년대 후반 독립운동세력의 대통합을 다시 한 번 모색한 그는 민족유일당운동에 참여하며 1930년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931년 일본군의 만주 침공 직후에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7년 4월 13일 순국하였다.



경북지역 계몽운동을 확산시킨 협동학교를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은 기사로 보도하고 격려하였다. 김동삼과 협동학교 교직원들의 모습(1910) : 독립기념관



협동학교 졸업증서(1911년 3월 30일) 출처 : 독립기념관

8) 임시정부 8곳 중에 4곳에서 군무총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



임시정부 국무총리 노백린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75년 1월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건장한 체격과 호탕한 성격으로 무인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자랐다. 1895년 대한제국 정부 관비유학생⁴³⁾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 경응의숙, 성성학교를 졸업한 뒤 1898년 11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이듬해 일본 육사 제11기로 임관하였다. 임관과 동시에 도쿄에 소재한 보병 제1연대와 제3연대 포병대와 공병대에서 견습 사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에게 귀국을 지시하거나 봉급 등을 전혀 주지 않아 호구지책이 막연한 상황이었다. 1900년 6월 인천을 통하여 어담 · 윤치성 · 김성은 등과 귀국한 후에 참위로 승진하였다.

1901년 원수부 회계국 총장인 민영환이 천거하여 김희선 · 김형섭 · 김성은 등과 함께 육군무관학교 보병과 교관에 임명되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해산되어 군복을 벗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안창호, 양기탁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⁴⁴⁾를 조직하며 구국운동의 길에 뛰어들었다.

43) 조선정부는 부국강병책 일환으로 일본유학생을 1895년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윤치성을 비롯한 이갑, 유동열, 이조현, 어담, 어윤적, 원응상, 유문환, 김형섭 등 114명이 선발되었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자 인천을 출발하면서 단발하였다. 4월 7일 일본에 도착한 일행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였다.

44) 1907년 4월 안창호의 발기로 양기탁·전덕기·이동휘·이동녕·이갑·유동열·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이승훈·안태국·최광옥·이시영·이회영·이상재·윤치호·이강·조성환·김구·신채호·박은식·



일본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노백린의 모습(1898~1899) :
독립기념관



군사훈련 중인 대한제국 군인 : 독립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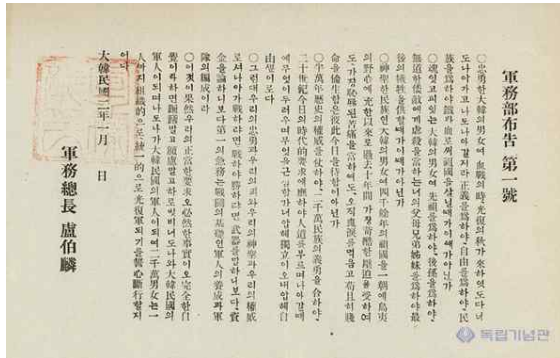
1915년 중국 상해를 거쳐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하와이 오아후에서 박용만과 함께 국민군단을 창설하며 본격적으로 독립군 양성에 나섰다. 이후 19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시보>를 창간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하여 한인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에 선임되었다. 당시 미주에 있던 그는 서신과 인편을 통해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며 군사정책의 대강을 세워갔다. 1920년 1월 24일 공포된 「군무부포고」 제1호⁴⁵⁾에서는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을 통한 광복군 육성을 공표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향후 전쟁에서 육군보다 공군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행사 양성을 계획하였다. 군무총장으로서 미주 한인들에게 신념과 계획을 설교하였고, 이에 감복한 미주 한인동포사회는 성심성의껏 그를 도왔다. 그 결과 1920년 2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방 윌로우스에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였다. 그가 창설한 비행사 양성소는 독립운동사상 최초로 공군력을 통해 독립전쟁을 준비한 것이자, 한국 역사상 첫 공군학교였다. 1920년 2대의 연습용 비행기로 출발한 비행사 양성소는 점차 성장하여 1922년 6월에는 학생 수가 41명에 달하고 1923년에는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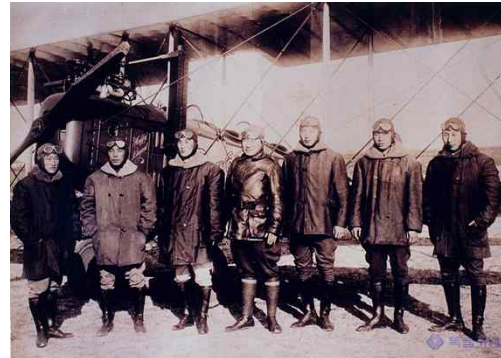
1921년 중국 상해에 부임한 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2년 임시정부가 내분으로 위기를 겪던 때에 그는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국민대표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줄곧 민족의 통일과 독립전쟁을 부르짖던 그는

임치정·이종호·주진수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로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개화자강파들이 일제에 반대하여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창건한 전국적 규모의 비밀결사 조직.
45) 1920년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백린 군무부총장이 군인의 양성과 군대편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지원할 것을 권유하는 포고문

1926년 1월 22일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이후 70여년간 중국에 머물던 유해는 1993년 고국으로 돌아와 동작동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군무총장 노백린 명의로 발표된 「군무부포고 제1호」
1920년 1월 군인의 양성과 군대편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지원할 것을 권유하는 포고문. 출처:
독립기념관



군무총장 노백린과 미주 한인비행사양성소 교관들.
왼쪽부터 노백린, 이용근, 이용선, 이조, 한장호
출처: 독립기념관

9) 한성정부 수립을 주도하고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3회 역임한 홍진



임시정부 요인 홍진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홍진의 본명은 홍면희이고 1877년 8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에 의해 한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격변하는 세계를 보며 신학문에 관심을 갖고 1904년 법관양성소 졸업 후 한성재판소 주사로 근무하다 1906년 검사가 되어 충청북도 충주재판소의 검사로 재직하였다. 1909년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이규갑⁴⁶⁾과 함께, 국내 임시정부인 한성정부 수립을 추진하여 전국의 13도 대표자 대회를 열어 한성 임시정부⁴⁷⁾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한성 임시정부를 출범 후,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1919년 4월 8일 한 남수를 상해로 파견하고 자신도 4월 15일 한성정부 조직안을 성냥갑 등에 숨겨 상해로 망명하면서 이름을 홍진으로 바꾸었다. 국내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도 촉진되어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이 구성⁴⁸⁾되고 4월 30일 제4회

46) 이규갑은 1919년 2월 평양지역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여 홍진(洪震) 등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국민회의 중앙대표로 활동하여 4월 23일 한성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47) 1919년 4월 서울에서 세워진 임시정부인 한성정부는 연합통신(UP)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욱 선포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서울에서, 그것도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뒷날 여러 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48)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한성정부’를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임시정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되고 홍진의 상해행을 주선해 준 황옥과의 관계로 인해 밀정으로 몰리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충청도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홍진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법제위원장이 되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근대적 법률제도를 갖춰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에 있는 국민의회 정부를 통합하는데도 기여하여 1921년 5월 제3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외교적 노력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태평양 회의에 한국독립 문제를 상정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승만과 서재필을 참석 대표로 선출하고 국내에서 각 사회단체와 지역 대표자 372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민이 태평양회의에 보내는 글(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를 보냈으나 태평양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자 이에 책임을 지고 1922년 4월 임시의정원 의장을 사퇴하였다.

1922년부터 국민대표회의 문제로 임시정부에 갈등⁴⁹⁾이 일어나자, 이를 봉합하기 위해 안창호, 이시영 등과 힘을 합하기도 했다. 1925년 임시정부가 내각책임제 체제로 전환된 후, 이듬해 7월 제4대 국무령에 올랐다. 이때 그는 비타협적 자주 독립운동 전개, 전민족적 대당 건립, 피압박민족과의 연대를 천명하는 <시정 방침 3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민족유일당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대표가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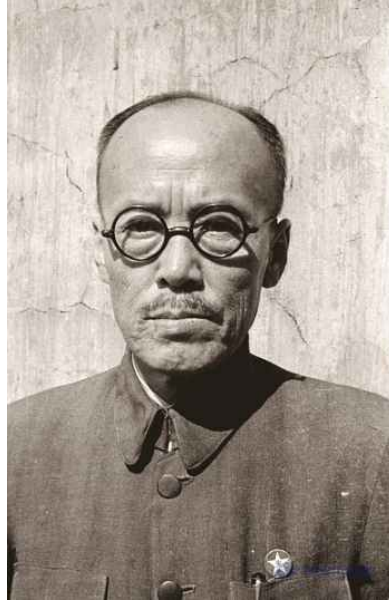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좌우연합을 위해 노력하던 그는 1939년 다시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어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데도 기여하였다. 1942년 임시의정원이 좌우익을 망라한 통합의회를 구성했을 때, 다시 한 번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3번이나 의장을 역임한 그는 ‘의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에 온 힘을 쏟았다. 1946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자주국가 건설에 매진하던 중 9월 9일 서거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황옥은 일제 경찰로 경시(警視)로 근무하면서 고려공산단원이기도 했던 인물로 황옥이 의열단에 잠입한 일제의 밀정이었는지 친일파로 위장한 독립투사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49) 1923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 대표들의 회의. 1920년대 상해임시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곳곳에서 항일 독립군을 총망라하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났다.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독립운동 계획, 나아가서 독립운동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는 데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끊임없이 대립과 운동 노선 차이 등, 서로간의 파벌과 이념의 대립으로 폐회되고 말았다. 그 후 임정은 임정대로 다시 재건되었고, 중국 동북 지역의 독립운동계도 일정 기간 진통을 겪다가 1920년대 중반에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의 3부로 정리되어 재통일되었다.

10) 일본군 현역 장교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된 지청천 장군



임시정부 요인 지청천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1888년 2월 15일 서울 삼청동에서 태어나 1904년 어머니 몰래 배재학당에 들어갔는데, 재학 중 황성기독교청년회의 비밀회합에서 "무장을 갖추고 조국을 되찾자"고 절규했다는 소문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배재학당을 그만두었다.

그 후 외세의 침탈을 막기 위한 활로가 독립전쟁에 있음을 인식하고, 1907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통감부의 강압으로 무관학교가 폐교되자, 근대적 군사지식을 쌓아 구국의 간성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1914년 5월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 일본군 제10사단에 배속되어 일선 지휘관으로 청도전투⁵⁰⁾에 참전했다.

3·1운동 직후 6개월간 휴가를 얻어 국내로 돌아왔다. 망명 기회를 노리던 그는 일본 육사 선배인 김광서와 함께 1919년 6월 하순 남만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현역장교의 직을 지닌 채로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할 때까지도 혁명의 길을 찾느라고 고심참담하였다"는 회고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만주로 망명하면서 일제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 어머니의 성을 따

50) 제1차 세계대전중 일본 제국이 영국 해군과 협동해 독일 제국의 조차지인 키아우초우를 습격해 함락하고 그로 인해 승전국 지위를 쟁긴 전투이다. 일본 제국은 1922년까지 해당 지역을 지배하다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때의 결과로 중국에 반환하였다

라 이씨로 고치고, 이름 중 '청(靑)'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푸른 하늘에 맹세코 조국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으며, '천(天)'은 하늘의 대공무사(大公無私)함을 본받을 것을 맹서하는 의미였다. 호 백산(白山)은 독립군 동지들이 지어준 것으로, 백두산, 즉 영원히 조국을 지키고 있는 상징의 의미였다.

망명 후 서간도 류허현(柳河縣)에 있던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발탁되었고 교성대장으로 선임되어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 이때 경천 김광서, 동천 신팔군과 함께 '만주 3천'으로 이름을 떨쳤다.



지청천(지석규)과 함께 일본 현역군인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된 김경천(김광서) 장군(1932년 사진)
출처: 독립기념관



신흥무관학교 사람들은 신동천(신팔군)까지 세 사람을 가리켜 '만주 3천(滿洲三天)'으로 불렀다.
출처: 독립기념관

1920년 신흥무관학교가 폐쇄되자, 100여 명의 생도 및 서로군정서 병력을 이끌고 백두산 근처로 이동하였고, 독립군연합부대와 청산리 전투를 치렀다.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지청천은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러시아령으로 이동하였으나 1921년 6월 한인 정치세력 간 군권 다툼의 와중에서 '자유시참변⁵¹⁾'을 겪었다.

51) 흑하사변(黑河事變). 1921년 6월 28일, 노령 자유시(알렉세프스크)에서 3마일 떨어진 수라세프카에 주둔 중인 한인 부대인 사할린 의용대를 러시아 적군 제29연대와 한인보병자유대대(이하 자유대대)가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르쿠츠크와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파쟁이 불러일으킨 한국 무장독립전사상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다.

1930년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며 군사위원장이 된 지청천은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자 한국독립군을 이끌며 초기 전투에서 적지않은 승리를 거두었고, 중국 항일군과 연합작전을 펼쳐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그는 1932년 중국 육군군관학교에 신설된 한인특별반 운영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1933년 6월 말 일본의 간도파견군을 공격한 '대전자령 전투⁵²⁾'는 청산리 · 봉오동 대첩과 함께 독립전쟁 '3대첩'으로 꼽힌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창설과 함께 총사령관이 되었다. 총사령으로서 각 지대에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통한 광복군 병력의 충원을 독려하여 창설 당시 30여 명에 불과하던 광복군 병력은 1945년 8월경 700여명을 헤아렸다.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과 임시정부 주석 김구
출처: 독립기념관



지청천의 장남 지달수(독립유공자 묘역 89)와 차녀
지복영(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456)
출처: 독립기념관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시참변 [自由市慘變]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52) 1930년 홍진(洪震)·지청천·신숙(申肅) 등은 한족자치연합회를 모체로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소속 독립군으로 '한국독립군'을 편성하여 일본군에 대한 항전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 시세영(柴世榮) 부대는 1933년 대전자에 주둔 중인 일본 19사단 소속 간도파견군이 연길로 철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한국독립군이 공격을 담당하여 일본군 군복 3,000벌, 군수품 200여 마차, 대포 3문, 박격포 10문, 소총 1,500정, 담요 300장 등 막대한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전자령전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